

日 핵무장→韓 핵개발→中 핵대응→臺灣 핵개발

동북아 핵개발 도미노 오나

한국 1~2년, 일본 수개월내 제조 역량 갖춰

美, 우방국에 핵우산 공약 제시하며 차단나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동북아에서의 핵개발 도미노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까.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우방들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거듭 확인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거나 안보위기가 극단적으로 고조될 경우 핵개발 경쟁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더욱이 일본과 한국, 대만 등은 이미 상당한 핵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여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폭탄을 제조할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 CNN은 18일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 "일본은 수개월 내, 한국은 1~2년내 핵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미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우방들에 대한 방위 공약은 확고하다"고 다짐해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날 일본을 방문, 아소 다로 일 외상과 회담 후 "미국은 일본을 방어해 줄 것이며 그럴 능력이 있다"고 역설한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핵개발 구실을 찾아온 일본에 북한의 핵실험은 핵개발에 나설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핵무장은 곧바로 한국의 핵개발 의욕을 부추기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 중국의 핵 대응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곧바로 대만의 핵개발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미국이 확고한 대일 방위 공약을 다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이 핵개발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지만 일본 정계에서 그간 보수 정파를 중심으로 핵개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문제의 핵심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계속 미국의 핵우산에 돌리

다"고 역설한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핵개발 구실을 찾아온 일본에 북한의 핵실험은 핵개발에 나설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핵무장은 곧바로 한국의 핵개발 의욕을 부추기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한 중국의 핵 대응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곧바로 대만의 핵개발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 미국이 확고한 대일 방위 공약을 다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본이 핵개발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많지 않지만 일본 정계에서 그간 보수 정파를 중심으로 핵개발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문제의 핵심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계속 미국의 핵우산에 돌리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핵무장을 용인할 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미국이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눈감아 준다면 일본의 핵무장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별다른 변화의 조짐은 없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핵포기 설득 노력이 끝내 실패, 북한이 연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이 대립하는 극한 상황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 속단하기 힘들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우리도 장기적으로 핵무장 검토해야”

이회창 前총재 주장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19일 북핵과 관련한 상황이 악화할 경우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재는 이날 동국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우리의 생존과 미래' 특강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하고 한미동맹 약화와 핵 군비 경쟁 가열로 일본 등 주변국이 핵개발에 다가서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 우리도 장기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핵 잠재력만으로는 대북 억제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핵 내지 핵 잠재력 국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핵 능력으로 상대 핵 국가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 사태가 북한의 체제변화나 붕괴 등으로 이어질 경우 한미동맹 및 중·러·일 등 주변 강국과의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北 주민들 “우리는 위험한 국가”

방북 미 ABC 방송 보도

“이젠 미국에 압력 넣을 시기”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유용한 대응조치였다며 미국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방북 취재 중인 미 A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전날 평양에 도착한 ABC취재진은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사태에 대한 반응을 점검했다며 한 여성이 이 방송 다이엔 쇼어 기자의 손을 붙잡고 미국을 강력히 비난한 뒤 “우리는 위험한 나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노인은 북한의 핵실험이 절대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미국이 전세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압력을 넣을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한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

한 여대생은 미국이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야기한 “중대한 적”이라며 “당신들은 우리 북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해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들도 미국은 좋은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거나 “우리는 미국의 돈에는 관심이 없으며 우리 나라를 사랑한다”고 강조하는 등 미국에 대해 한결같은 적대감을 드러냈다.



북핵이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방북한 미국 ABC 방송 다이엔 쇼어가 18일 평양 시내에서 한 여대생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찰스 라스티그 국장을 단장으로 한 ABC방송 취재팀은 17일 북한에 들어가 핵실험과 관련된 북한 내 입장과 반응을 취재하고 있으며, 이날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과의 인터뷰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방송했다.

한편 리근 국장은 인터뷰에서 “(추가) 핵실험이 있다 해도 자연스런 것”이라고 말했다.

ABC방송은 작년 6월에도 평양을 방문해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하고 있다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방영한 바 있다.

美 ‘한국 핵우산 보장’ 구체화

한·미 합참의장 전격 합의
연합사령관에 지침 하달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 공약을 바벨 벨 한미 연합사령관에 구체화하도록 전략지침을 하달했다.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이상희 합참의장과 피터 페이스 미 합참의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8차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회담에 배석한 안기석(해군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밝혔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북한 핵에 대비한 핵우산(핵 전력)을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의했고 미측도 이에 적극 동의, 연합사령관에게 즉각 핵우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이 하달됐다는 것이다.

군사위원회(MC)로부터 전략지침을 하달 받은 연합사령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방안을 구현해 나가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연합사령관은 단기적으로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보완하거나 별도의 ‘연합사 핵위협 대비태세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안 등을 모두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19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웨라톤내셔널 호텔에서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이 제2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행사에 따라 연합사가 해제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1~2년내에 가시적인 핵우산 보장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기석 소장은 이와 관련,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인에게 확신을 주고 북한에는 강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핵우산 제공 문제를 심

도있게 토의했다”면서 “우리 측이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하자 미측은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핵우산 제공 공약이 역대 SCM(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보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 훨씬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력 인공위성 발사 미국 때문에 지연”

신동아 보도-과기부 '부인'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정부 계획이 미국의 개입으로 늦어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월간 '신동아'가 입수한 과학기술부의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우려, 러시아 우주발사체 기술의 한국 이전에 반대하는 서한을 러시아 외무부에 보냈으며 이후 초 러시아 측은 우주발사체 설계도 및 발사대 설계도의 한국 이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년 10월 고궁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예정된 한국우주발사체(KSLV-I) 발사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미국이 러시아에 그런 서한을 보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방해 때문에 KSLV-I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채희준기자 chae@kwangju.co.kr



“이란·알카에다에 핵 판다면 중대 결과”

부시, 北에 강력 경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핵무기를 이란이나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에 팔려한다면 이를 중단시킬 것이며 북한은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의 핵무기 및 핵기술 이전을 강력히 경고했다.

일본은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도 19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미국 A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전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다면 북한 핵물질을 실은 배나 항공기에 적절히 대응해 이를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그들(북한)은 그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지 북한이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하겠다”며 밝히기를 거부했다.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을 최근 미국이 공식 확인했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 이전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며 따라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받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라이스 장관은 19일 현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2차 핵 실험시 “우리는 추가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결의와 미국내법에 근거, 대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대사업자 및 직원 모집

10/25(일) 10:00

모집 대상: 임대사업자, 직원

모집 요건: ...

모집 혜택: ...

문의처: ...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역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려적 공법의 특징

- 국내최초 인역지반 강화공법
- 침하정착 후 인역지반 인공구조물 설치
- 기존시설물 이용하여 경제효율적 구조물
- 동등 구조물간 안전

우려적 공법의 적용분야

- 기존시설물 인역지반 강화공법
- 침하정착 후 인역지반 인공구조물 설치
- 기존시설물 이용하여 경제효율적 구조물
- 동등 구조물간 안전

문의처: ...